

希望을 심어준 技術結緣

소외감 찢고 生氣되찾은 靈通里

高光出 새마을技術奉仕團員의 努力주효

우리 民族의 繁榮과 近代化를 為해 始作된 새마을 運動이 해를 거듭 할 수록 큰 成果를 올리고 있다. 科技總 새마을 技術奉仕團은 科學的인 技術指導로써 落後된 農漁村의 復興과 發展을 期하기 위해 全國에서 技術奉仕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現在 全國 9個道에 이미 結成된 道 새마을 技術奉仕團은 該當地域의 開發 및 發展을 先導하기 위해 現地 指導에 重點的 活動을 하고 있다.

특히 1 科學技術人 1 마을 技術結緣을 적극적으로 展開하고 있으며 地域社會 特性을 考慮研究指導에 臨하고 있는데 그 事業의 結實이 하나 하나 알차게 여물고 있다.

새마을 技術奉仕團專門委員인 高光出博士(서울 農大 교수)는 京畿道 莊城郡 台安面 靈通마을과 技術結緣을 맺고 이룩한 第1次 事業結果報告를 보내 왔다.

그 등안 소외 되어 꿈을 잃었던 한 마을이 科學技術者와 姉妹結緣으로 豐饒한 來日을 期約하면서 發展해가는 참모습을 여기에 掲載한다.

—편집자 주—

새마을 姉妹部落 靈通里 開發事業은
이렇게 推進되고 있다
高 光 出 (서울大 農大教授)



사진 :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연통리 마을

1974年度 1學期부터 學生들이 履修하여야 할 校外現地實習은 京畿道에서 指導하는 農村部落에서 專攻學科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實施되었다. 農家政學科, 園藝學科, 造景學科 2學年 62名, 指導教授 3名이 參加하였다. 現地實習은 講義室에서 説한 知識을 實際로 農村에 나가 訓練함으로써 理論과 實際를 連結시키는 機會라고 볼때 學生은 勿論 指導教授도相當한 關心과, 實効를 가져오기 위한 準備가 必要하였다.

過去 學生들이 農村奉仕活動을 數없이 벌여왔으며 또한 社會團體에서도 農村復興을 위한 여러가지 形態의 支援을 한바 있으나 大體的으로 그 効果는 一時的 行事로 그쳤거나 몇가지 物量의 支援으로 끝났기 때문에 綜合的이고도 持續的인 事業으로는 發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結果는 基本 農民側에서 볼때 依他心

活動實例

과 그 뒷된 虛慾을 조장하여 自立精神을 걸려주지 못하였고 支援者側으로 볼 때는 形式的인 理論과 被動的인 傳達行事로 그친 事例가 되기도 하였다.

農村復興은 農民 스스로가 잘 살아 보겠다는 自助, 勤勉, 協同의 自立精神이 先行되지 않을 때는 實効를 얻기 힘든다. 農民 스스로가努力하여도 어려울 때 그 뒤에서 後援者가 조금만 協助한다면 險難한 고개를 넘어 自立할 수 있는 길은 열려지게 마련이다.

現地實習에 參與하는 科學者와 學生들은 韓國의 農村을 어떻게'復興시켜 나갈 것인지窮理하고 實際로 한마을이 피나는 努力으로 自立하여 나가는 過程을 直視하고 배우고 訓練함으로써 自信感을 기르고 보다 밝은 來日의 農村建設을 위한 指導者로서의 實力を 培養하여야 할 것이요 指導教授는 이러한 事業이 成功的으로 達成될 수 있도록 決定的인 導火線이 되는 役割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姊妹部落結緣의 動機

出發當時姊妹部落의 背景

靈通里는 面事務所가 餅店에 位置하여 行政力이 미치기에 매우 困難하고 別다른 刺戟을 받기에는 不利한 마을이었다. 住民들은 約 5km나 떨어진 水原과 生活에 密接한 關係를 가져야하는 形便이 있다. 農家는 全家口數 69戶中 59戶였고 部落民數는 總 392名으로 男子 203名, 女子 189名이 살고 있었다. 土地는 總 345.2 ha中 畜 24.2ha, 田 24.0 ha, 林野 297.0 ha로 구성되어比較的 山地가 많은 便이다. 耕地規模는 農家戶當 0.81 ha로 전형적인 韓國의 零細農村임을 알 수 있었다. 解放前 이 部落은 몇몇 土豪가 全土地를 所有하여 世襲的으로 傳來하여 살아온 洞里로 近年 農地改革에 의하여 農地는 分配되어 零細化의 계기가 되었고 그後 無知와 農村經濟의 不況으로相當한 土地가 都市資本主들의 所有로 넘어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結果는 所得의 半減을 가져와 全般的인 部落勢는 極度로 弱化되고 말았다.

水原이 가깝고 隣近에 高速道路入路가 지나는 等 立地條件은 매우 좋은데도 家貧과 穀糧的指導者를 만나지 못하여 꿈을 깨지 못하고 있었다. 農事는 祖上傳來의 主穀農原을 脫皮하지 못하고 種子들도 低位生產性의 退化된 것들을 심고 있었다. 全國 坊坊曲曲에서 새마을 建設의 媒介가 울려퍼지는 데도 農閑期에는 할일없이 飲酒, 도박등으로 消日하는 例가 허다하다. 그간 그 部落出身인 吳以秋氏나 李鍾得氏가 이 部落復興을 위해 心血을 傾注한 일도 있었으나 實効를 거두지 못한 채 職場과 事業을 위해 大都市로 轉出하고 말았다. 指導者를 잊은 이부락에서는 里長 李福男氏가 部落開發을 위해 孤軍奮鬥하고 있었다. 部落의 婦女子들의 共通된 이야기인즉 「이렇게 가난한 洞里에 출집이 둘 있습니다. 풀집을 지고 오던 남자도 출집에 들리면 풀자개가 썩어야 나온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가난과 實의 속에 살아온 부락민들의 生活의一面을 잘 나타내주고 있었다.

當初 道에서 指定하는 現地實習對象 마을은 水原近郊의 園藝마을인 파장마을이었다. 파장마을 近處에는 園藝試驗場이 位置하고 있으며 京水街道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그 部落에는 大單位企業農場이 많았다. 80餘戶 家口中 農家는 5戶뿐 나머지는 大都市의 勤勞者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地域農地의 約 90%가 몇몇 企業農의 所有로 이곳에서 學生을 指導할 때 商業的 원예의 찬기술은 얻을지 모르나 學生들을 單純勞役者로 轉落시킴으로써 發展하여야 할 韓國農村의 찬 모습을 體驗할 수 있는 機會를 喪失시킬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새마을 技術奉仕團이 試圖하는 技術結緣과는 너무나 격차가 크기에 水原近郊에 位置한 純粹農村이면서 開發이 落後된 部落을 單獨物色에 나섰던 중 지금의 華城郡 台安面 灵通마을을 찾게 되었으며 1974年 6月 20일에 새마을 技術奉仕團과 技術指導를 위한 姉妹結緣을 맺게 되었다.

學生들과 技術奉仕團員의
現地實習技術指導의 始作

學生들을 現地部落에 引率指導하기 전에 實効를 얻기 위한 徹底한 事業計劃와 準備가 先行되어야 했다.

첫째는 男女大學生들이 農村實習을 通하여 農村을 理解하고 배우며 일손을 도와 體驗하려 왔다는 뜻을 全部落民들에게 이해시켜서 誤解없이一行을 맞게하는 일이었고,

둘째는 學生들이 農村實情을 簡으로써 言行을 바르게 하고 無事히 마칠 때까지 배우는 學生의 姿勢를 갖게 하는 일

셋째 現地 技術指導의 보람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技術結緣 姉部落인 靈通里의 철저한 開發策을樹立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일들이 成功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部落民에게 絶對로 조금의被害라도 있어서는 안되었다. 學校當局에서는 10餘日동안 現地實習費用을 1人當 6000餘원씩을 補助하게 되었고 支給된 實習費는 事前에 指導教授와 學生代表가 支出豫算을 作成하여 學生代表로 하여금 執行케 했다.

드디어 6月 29日 靈通里에 가게 되었다. 學生들이 部落洞口의 산고개를 넘어 오자 一行을 親切하게 맞아준 里長과는 대조적으로 누추한 農家에 留宿시키기가 면피스러웠던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서울富者가 꾸며놓은 別莊으로 案内하였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學生들이 별장에서의 유숙을 한사코 반대하는 것이었다. 「짧은 열흘간이나마 우리의 부모형제와 다름없는 農民들과 한술의 밥을 먹고, 호흡을 같이하면서, 농민을 돋고 또 배우고 가야겠기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러한 뜻은 技術奉仕團員도 미처 몰랐으며, 이러한 뜻이 부락민에게 알려지자 조금 놀라기도 하면서, 마치 大都會에서 공부하다 잠시 돌아온 아들·딸을 반기는 부모의 마음인양 各家庭에서는 서로 학생들을 맡겠

다고 나섰다. 참으로 눈물겹도록 감격적이고 또 동시에 다행한 일이었다. 미리 廣告로 알렸던 대로 저녁에는 農村振興廳의 협조로 「農村의 어제와 오늘」「自立한 마을의 成功事例」 등의 영화 3편을 보여주게 되었다. 한적한 영통리의 척박을 깨고 發電機에 의한 力強擴聲器에서 음악이 흘러나가니, 하루일에 피로한 부락민이지만 호기심에 남녀노소할것없이 150餘名이 雲集하여 영화上映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관람한 부락민들은 모두 영화의 내용에 감동하고 있었다. 우리의 뜻을 알리고 영통리마을 건설을 위해 住民들의 분발을促求할 수 있는機會는 바로 이때였다. 그날밤 子正이 널도록 주민들과 격의없는 친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部落開發에 積極協同하겠다는 주민들이 속출했다. 健全한 部落發展의 前衛的役割을 할 青年會, 衣食住生活改善의 主軸이 될 婦女會, 科學營農技術의 導入으로 急進의 得所事業을 推進할 農事改良俱樂部를 組織하는데도 成功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不足한 實習費를 節約하여 흑판 한개, 農具 30點, 국수 한짜, 그리고 會館앞에 달部落鍾 한개를 案贈했다. 10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나마 는밭에서 열심히部落民들과 같이 일하며 農事일을 도왔다. 雨天時는部落勢調查를 위한 戶別訪問을 하였고 그들과의共同作業으로 마을안길整理, 排水路擴張등 科學技術指導로서 괄목 할만한 成果를 거두었다.當局으로부터 시멘트 150包를 지원받아 소고량도 2개소 구축하였다.

技術奉仕團員도 現地에서 학생들과 같이 숙식하며 열심히 지도하였다.部落民에 비친 現地實習班의 勤勉性, 예절바름, 奉仕精神,明朗한 表情은 곧 그들을 同化시켜 학생들과 技術奉仕團員이 부락을 떠나던 날은 洞民모두가 뜻내 서운했으며 情이 듬뿍든 어느 婦女子는 고개마루까지 따라와 눈물짓기도했다.

.....
..... 다음호에 계속 활동 실례를 소개 합니다.
(필자: 새마을 기술봉사단 전문위원)